

향토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탄력

전주시 기업 기살리기 정책 성과... 美 박람회서 240만 달러 상당 수출계약 체결 등 집중 지원

전주시가 향토기업을 세계시장을 주 도할 독일형 중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수출지원 예산을 10배나 늘리는 등 기업 기(氣) 살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눈에 띈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함께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50년 전통의 북미 최대 규모의 박람회인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시회'에 참여한 결과, 24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 중이다.

주요 품목은 이온수공급장치와 비감 마스크, 친환경건축자재, 즉식 식품 및 용기, 산업용에이프, 김과자, 쌀과자 등이다.

해외바이어들과의 상담액도 630만여 달러로 최근 아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 계약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 참여한 해외바이어들은 전

주 향토기업의 품목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의 경우 미주, 호주, 중국 등 9개국의 유망 바이어 19개사를 초청해 '전주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업체들은 800만 달러 상당의 상담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어와의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려자연식품은 사드영향으로 중국의 제품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스타벅스의 원료공급업체로 선정돼 '갈아 만든 유자차'를 수출하게 됐다.

전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글로벌 스타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개사씩을 선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지마케팅, 국제인증 추진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타기업 중 티앤시의 경우 세계 큰 크리트 펌프시장 업계 1, 2위 업체와 샘플테스트 진행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을 중기업,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의 경우 참여기업 8곳은 46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주시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수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 뷰티기업들에게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사업과 R&D지원 등 지원으로 수출에 동력을 제공했다.

(주)바이허브의 경우 파슬리 카빙 슬러퍼를 미국의 뷰티 유통회사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농업회사법인 어의당(주)은 중국 소빙물 업체와 런칭을 통해 화장품과 마스크팩을 판매 중이다. (주)휴먼파이코텍 역시 레드푸드 편백 마스크팩의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시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실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토기업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커다란 버팀목"이라며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중화권 및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17홍콩식품박람회에 전북 수출세일즈 공동관으로 참가해 7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식품도 한류... 중화권 수출길 열어

생진원, 홍공식품박람회 참가 도내 기업 73만달러 계약 성사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중화권 및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17홍공식품박람회에 전북 수출세일즈 공동관으로 참가해 7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홍공식품박람회는 26개 나라에서

1,4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2만1,000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식품박람회로, 도내에서는 수출유망 기업 8개사가 참가해 내방한 다국적 바이어와 열띤 상담이 진행됐다.

홍공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시장으로 지난 5개월간 한국산 식품의 홍공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나며 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홍공 내 한류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져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식 등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전북도와 생진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나만의 삼시세끼' 컨셉으로 현지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참가한 기업과 함께 북장 및 제품을 동일한 컨셉으로 홍보한 결과 바이어의 관심을 유발시키며 50건 상담과 11건의 계약을 이끌어 냈다.

/인재용 기자

사회적경제 전문가 '머리맞대'

경진원, 한·일교류 세미나 지역전개 방안 모색 등 논의

사회적경제 세계 흐름 분석을 통한 지역전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2일 전북합동사회연대회의와 공동주관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일본에서의 수용과 전개 사례(다 나카나츠코 교수, 츠투분기대학),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교베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사례(후지이아츠시 교수, 릿 교대학),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김정원 교수, 전북대학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기관, 중간지원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지역전개를 위해서는 도내 협동적 조직체들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흐름을 분석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면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을 수립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왕십리 유명맛집, 롯데백에 등지

캐주얼 퓨전 중식당 '매란방' 코스요리 가격 1만2000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왕십리 유명맛집으로 유명한 캐주얼 퓨전 중식당 '매란방'을 6층 식당가에 오픈하면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픈 첫선을 보였던 20일, 1,000여명의 고객이 매란방을 방문하면서 유명 맛집으로의 명성을 확인했다.

'매란방'은 영화 패왕별희의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중국 개화기 시대의 느낌과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독특한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매

장에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매란방의 대표메뉴로는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몽실 탕수육'이 있다.

특히 맛과 멋을 그리는 캐주얼 중식당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1만2,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식당 코스요리를 만날 수 있어 아이를 둔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전국의 유명 맛집을 시정조사하고 선정한 브랜드인 만큼, 기존 중식당의 정점과 가성비 높은 메뉴의 매란방은 지역 주민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저가항공 최초 조종사 복지 확대 협약

이스타항공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100일째 최초로 공제회 MOU 체결을 통해 9월부터 공식 가입절차에 들어가며 조종사 복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협약 체결로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 회원의 항공자격증명 상실 또는 사망 시 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공제회는 조종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상호협력, 한국 국적의 조종사가 한국 민간항공사에 근무하면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개인 파실 등으로 조종사 직

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사망할 경우, 그 회원이나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환별 별도로 지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저비용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특수직군에 해당하는 조종사를 위한 공제회 가입 추진 및 지원을 통해 조종사들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종사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산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